코로나19 발생 이후
전북지역기업 경영환경 인식조사

2021. 3

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

목 차

Ⅰ. 조사개요 ····· 2

Ⅱ.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영환경 인식조사 ····· 3

1. 작년 한 해 영업이익 변화 ····· 3

가. 영업이익 감소폭 ····· 4

나. 실적 회복 시점 ····· 4

2. 올해 예상 대내외리스크 ····· 5

가. 대내리스크 ····· 5

나. 대외리스크 ····· 5

3. 코로나19 이후 경제·산업·사회 변화 ····· 6

가. 국내 4차 산업 및 디지털 전환 속도 ····· 6

나. 선진국과 우리기업 간 기술 격차 ····· 6

다. 신흥국의 기술 추격 속도 ····· 6

라. 국내 소득 양극화 정도 ····· 7

Ⅲ. 결론 및 시사점 ····· 7

Ⅰ. 조 사 개 요

1. 조사목적

□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을 파악하고, 대내외리스크와 분야별 변화를 조사·분석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

2. 조사기간

□ 기초자료 조사 : 2021. 3. 4 ~ 3. 15

□ 자료정리 및 분석 : 2021. 3. 16 ~ 3. 19

□ 보고서 작성 : 2021. 3. 20 ~ 3. 23

3. 조사대상

□ 전북지역 소재 기업 143개사

4. 조사방법

□ FAX와 전화조사 병행

5. 조사항목

□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 변화

□ 올해 예상 대내외리스크

□ 예상 실적 회복 시점

□ 경제・산업・사회 변화

6. 기 타

□ 무응답은 통계처리에서 제외

□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퍼센트(%) 총계가 다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

7. 응답기업 특성

□ 본 조사에 참여한 141개 기업들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

[설문 응답기업 특성]

구 분		응답업체(개)	응답비율(%)
전 체		143	100.0
매출액[1] 규모	대 기 업	7	4.9
	중 기 업	12	8.4
	소 기 업	124	86.7

주1) 매출액 규모 구분 기준은 전년 기준 매출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 중기업,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함

Ⅱ.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영환경 인식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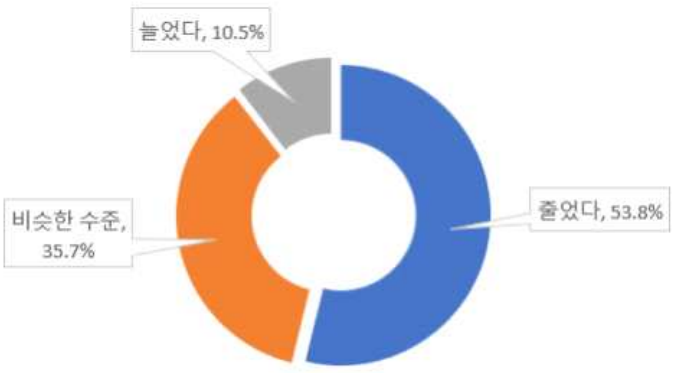
1. 작년 한 해 영업이익 변화

□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봄을 맞아 회복의 기지개를 켜고 있으나, 지역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아직도 매서운 겨울 한파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됨

□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143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「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영환경 인식조사」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 이전(2019년)과 비교해 볼 때 10개 중 9개 업체가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함

□ 심각한 점은 **‘영업이익이 줄었다’**는 응답이 **53.8%**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, ‘비슷한 수준이다’라는 응답이 35.7%, ‘늘었다’는 응답은 10.5%로 나타남

[영업이익 변화]



가. 영업이익 감소폭

□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소폭을 물은 결과, ‘1~10% 감소했다’는 응답이 27.3%로 가장 높았으며, ‘11~20%’, ‘21~30%’가 각각 24.7%의 응답률을 나타냈고, ‘31~40%’, ‘41~50%’는 각각 6.5%, ‘51%이상’은 10.4%의 응답률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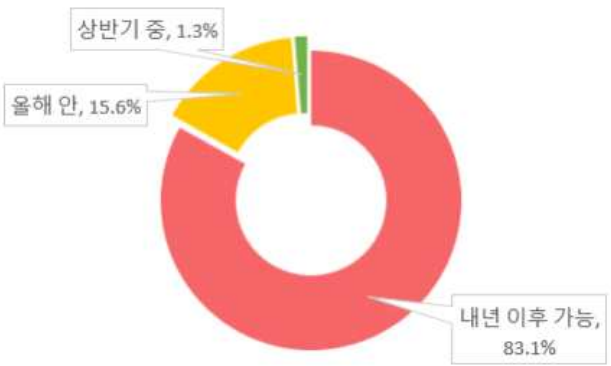
[영업이익 감소폭]

구 분	1~10%	11~20%	21~30%	31~40%	41~50%	51%이상
응답률	**27.3%**	24.7%	24.7%	6.5%	6.5%	10.4%

나. 실적 회복 시점

□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실적이 회복되는 예상 시점을 물은 결과 ‘내년 이후에 가능할 것’이라는 응답이 83.1%로 가장 많았으며, ‘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’이라는 응답은 ‘15.6%’로 나타남. 한편 ‘상반기’를 예상하는 기업은 1.3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

[실적 회복 시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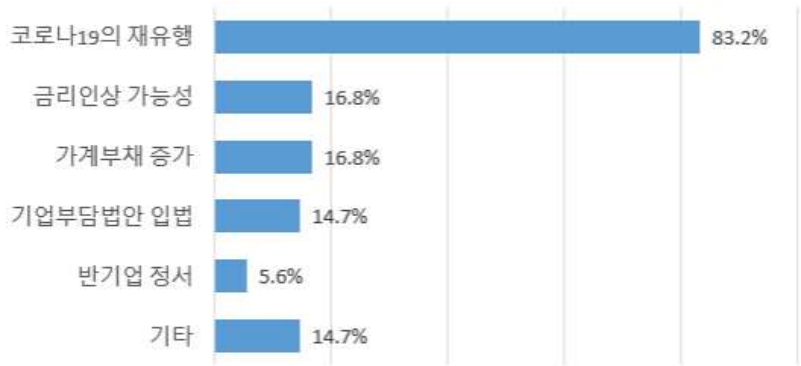


2. 올해 예상 대내외리스크

가. 대내리스크

□ 올해 경영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리스크로 우리 기업들은 ‘코로나19의 재유행’을 83.2%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, 뒤를 이어 ‘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’과 ‘가계부채 증가’가 각각 16.8%, ‘기업부담법안 입법’이 14.7%, ‘반기업 정서’가 5.6% 순으로 나타남. 기타 의견으로는 ‘내수위축에 따른 소비심리 감소’, ‘유가상승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’, ‘노동시간 단축’ 등의 의견이 조사됨(중복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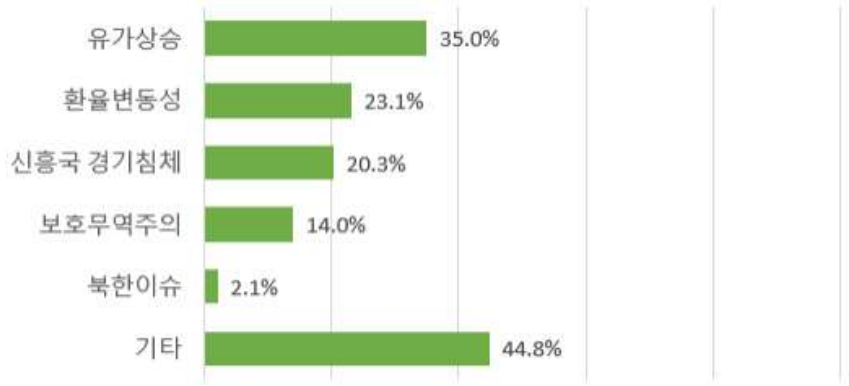
[예상 대내리스크]



나. 대외리스크

□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리스크로 ‘유가상승’이 35.%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, 뒤를 이어 ‘환율 변동성 확대’가 23.1%, ‘신흥국의 경기침체’가 20.3%, ‘미·중 무역갈등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’이 14.0% 순으로 나타남. 한편, 기타 의견으로는 ‘원자재가 상승’, ‘코로나19의 재확산’ 등의 의견이 많이 조사됨(중복응답)

[예상 대외리스크]



3. 코로나19 이후 경제·산업·사회 변화

가. 국내 4차 산업 및 디지털 전환 속도

□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경영환경에 찾아온 변화 중 '4차 산업과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' 는 응답이 73.4%로 가장 많았으며, 전과 비교해 '변화가 없다' 는 응답은 17.5%, '느려졌다' 는 응답은 9.1%로 나타남

나. 선진국과 우리기업 간 기술 격차

□ 선진국과 국내기업 간의 기술 격차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'변화가 없다' 는 응답이 50.3%로 가장 높았으며, '더 커졌다' 는 응답은 26.6%, '더 줄었다' 는 응답은 23.1%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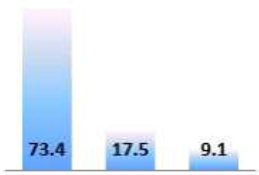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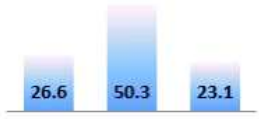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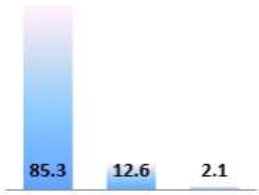
다. 신흥국의 기술 추격 속도

□ 중국 등과 같은 신흥국의 기술추격 속도에 대해 '코로나19 발생 이후 속도가 더 빨라졌다' 는 의견이 52.4%로 가장 높았으며, 전과 비교해 '변화가 없다' 는 의견은 39.9%, '더 느려졌다' 는 의견은 7.7%로 나타남

라. 국내 소득 양극화 정도

□ 코로나19 발생 이후 ‘국내 소득의 양극화 정도가 심화됐다’는 의견이 85.3%로 높게 나타났으며, 전과 비교해 ‘변화가 없다’는 의견은 12.6%, ‘전보다 완화됐다’는 의견은 2.1%로 조사됨

(단위 : %)

			
디지털 전환 속도	**선진국과 기술 격차**	**신흥국 기술 추격 속도**	**소득 양극화**

Ⅲ. 결론 및 시사점

□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충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지역 기업들은 올해 경영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□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지역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, 아울러 코로나 이전의 경기상황으로의 회복 시점이 내년 이후를 예상하는 응답이 조사기업의 80%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경기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

□ 특히,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통제되기까지는 향후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요인을 가장 큰 경영리스크로 꼽은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, 환율변동성 등도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조사됨

□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,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, 금융·세게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것임